

靑莊館 李德懋의 교감기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extual Bibliographical Achievements of
Cheong-jang-gwan Yi Deok-Mu

리 상 용(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자구적 교감 |
| 2. 청장관의 생애와 그의 교감관 | 3.2 내용적 교감 |
| 2.1 청장관의 생애 | 4. 결론 |
| 2.2 청장관의 교감관 | <참고문헌> |
| 3. 청장관 교감학의 실제 |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며 대문장가인 청장관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 산재된 그의 교감학적인 저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청장관은 풍부한 독서를 통한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많은 교감학적인 업적을 남겼다. 여기에서는 교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의 교감학적인 저술 사례를 자구적 교감과 내용적 교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구적 교감에서는 역사서, 사전, 일반 서적 등에 나온 인명, 지명 등 단어에서 틀린 글자에 대해 교감하였다. 내용적 교감에서는 경서의 주소, 역사서, 기타 분야서적으로 구분하여 거기에 수록된 기사에 대한 내용적 교감을 하였다.

要語 :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 교감학, 교수학, 교수교감학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06년 5월 18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extual bibliographical achievements of Yi Deok-Mu(李德懋), also called Cheong-jang-gwan(靑莊館), who was a great scholar and writer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the collection of his writings, titled < *Cheong-jang-gwan Chonso* >. With an ample knowledge about literature acquired from extensive reading, and the influence of textual criticism of the Ch'ing Dynasty, Yi Deok-Mu left a lot of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textual bibliography. This study explores his personal view about textual bibliography and analyzes the cases of his actual textual bibliographical works on both the letters and phrases and the texts. In the textual bibliography of the letters and phrase, he corrected the errors of letters and phrases in personal names and geographical names from history books, dictionaries, and general books. In the textual bibliography of the texts, he corrected the errors of the texts of the Confucian classics, history books, and other books.

Key words : Cheong-jang-gwan, *Cheong-jang-gwan Chonso*, Yi Deok-Mu, textual bibliography,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K C I

1. 서론

청장관 이덕무(靑莊館李德懋)는 영조17년(1741)에 태어나서 정조17년(1793)에 작고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대문장가이다. 청장관은 대단한 호서가로서 그의 학문과 문장이 당대에 크게 떨쳤으나, 서자인 탓에 큰 벼슬은 하지 못하였다. 청장관은 당시 워낙 많은 책을 탐독하고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국문학, 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서지학분야의 연구로는 박문열¹⁾과 박현욱²⁾의 것이 있다. 박문열은 청장관의 생애와 저술과 그의 「입연기(入燕記)」에 대해 다루었으며, 박현욱은 청장관의 규장각 검서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문학계의 문학론, 소설론, 시론,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교육학계의 교육사상,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사학계 및 철학계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청장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장관이 대문장가이며, 실학자이며, 독서가라는 사실은 규명하였으나, 그가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서적을 바탕으로 이룩한 많은 서지학적인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장관전서」에 나타난 그의 서지학적인 업적 가운데 교감학(校勘學)적인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장관의 생애와 그의 교감관

여기에서는 청장관의 생애와 그의 교감관(校勘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집(1987. 12), 187-214.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입연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국제개발연구원 「국제문화연구」 제13집(1996. 3), 81-104.

2)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2.1 청장관의 생애

청장관 이덕무는 영조17년(1741년)에 부친 통덕랑(通德郎) 이성호(李聖浩)와 모친 반남 박씨(潘南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종의 별자(別子)인 무림군(茂林君) 이선생(李善生)의 10대손이다. 그의 자(字)는 명숙(明淑), 무관(懋官)이며 호는 청장관(靑莊館) 외에 형암(炯庵), 아정(雅亭), 선굴당(蟬橘堂) 등 20여 개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³⁾

그는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서얼로 태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계마저 곤궁하여, 그는 어려서부터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6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거의 남의 집에 얹혀서 살 정도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였다.⁴⁾ 그러나 그는 워낙 총명한 기질과 호서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독서를 열심히 하여 평생 약 2만여권에 이르는 책을 읽었으며, 그 과정에서 손수 베껴 쓴 책만도 수백권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독서를 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호서가적인 기질은 연행(燕行)에 가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조2년(1778)에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엄조(沈念祖)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고수당(高秀堂), 문수당(文粹堂), 성경당(聖經堂) 등 여러 책방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열람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서적의 목록을 조사하고, 수십 종의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당대의 석학인 기균(紀均), 반정균(潘庭均),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⁶⁾

3)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의 「청장관전서」 참조
박지원, 행장(行狀)(「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4)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집(1987. 12), 189-190.

5) 박지원, 행장(行狀)(「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平生所讀書 殆踰二萬卷 手抄蠅頭細字 亦且數百卷.

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6, 67, 入燕記 上, 下.

그는 정조3년(1779년) 39세의 나이에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첫 관직생활을 하게 된다.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이자 당시 왕이었던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한 후에 당대의 빼어난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는데, 청장관은 그 일환으로 유득공, 박제가, 서리수 등과 함께 초대검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거기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는 동안 규장각신을 비롯한 많은 당대의 대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그는 어제(御製), 일성록(日省錄), 교지(教旨) 등과 관련된 문서를 정서하고 교정하였으며, 「송사전(宋史箋)」, 「무예도보(武藝圖譜)」, 「규장전운(奎章全韻)」,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당시 편찬된 명찬서의 정리와 교감작업을 하는 등 도서편찬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⁷⁾ 그는 규장각의 관직생활을 통해서 서적의 교감작업을 했으며, 그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정조5년(1781)에 내각검서관으로 옮겼으며,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 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 적성현감 등을 거쳐, 정조15년(1791)에 사옹원주부(司饔院注簿)가 되었다. 그는 비록 관품은 높지 않았지만 서얼의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관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빼어난 학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장관은 이와 같은 풍부한 독서와 대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속에서 「아정유고(雅亭遺稿)」, 「사소절(士小節)」,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 「열상방언(洌上方言)」 등 십여종의 저서를 남겼다.

2.2 청장관의 교감관

청장관의 생존 시기를 전후해서 청나라에서는 정치 문화적으로 최대의 안정기를 누렸으며, 고증학적인 학풍이 온 학계를 풍미하고 있었다. 그 고증학의 일파로

7) 이서구, 묘지명(墓誌銘)(「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박지원, 행장(行狀)(「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이광규, 선고부군유사(先考府君遺事)(「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3, 기(記) 檢書廳記.

문헌학, 즉 서지학이 융성하였는데, 어느 의미에서 고증은 결국 문헌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증학과 서지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형제적인 학문인 것이다.⁸⁾

청장관 역시 당시 황종희(黃宗羲), 고염무(顧炎武), 주이존(朱彝尊) 등 명말청초의 고증학자들에 심취하여 그가 고증학적인 학문태도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연경에서 만난 대학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의 고증적인 학문태도는 더욱 굳건해졌을 것이다.

그는 고증에 입각한 실증적인 학문태도를 중시하였으며, 문자와 음운과 훈고에 바탕을 둔 고증학에 주목하였다.⁹⁾ 청장관의 아들 광규(光葵)는 “책을 저술하는데 고거(考據)와 변증(辨證)을 정밀하게 하셨다. 일찍이 곤충과 초목 명물과 도수(度數) 경제와 방략(方略), 금석과 비판(碑板)에서부터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의 풍토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¹⁰⁾고 하여 자신의 부친인 청장관이 문헌을 저술하는 데 고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회상하고 있다.

이처럼 문헌에 대한 고증을 중시한 청장관은 평소에 교서(校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간행한 서적의 정밀함 여부는 오로지 교서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다. 교서하는 관리는 마땅히 널리 배워서 막힘이 없으며, 사리에 맞고 민첩하며, 마음이 차분하며, 부지런히 힘써서 진실로 책을 좋아하는 성벽(性癖)을 가진 사람을 각별히 선발해서 위임해야 하니,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교서의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刊書之精 專在校書之良 校書之官 當極擇博洽精敏沈靜勤勵 真有嗜書之癖者 委任之 不具此四德者事不濟矣)¹¹⁾

8)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4).

9) 류제일, 「이덕무의 시문학연구」 (서울 : 대학사, 1998), 57-60.

10) 이광규, 선고부군유사(先考府君遺事)(「청장관전서」 권20, 간본 아정유고(雅亭遺稿)8 부록). 嘗著書 工於考據辨證 嘗於昆蟲草木名物度數經濟方略金石碑板 以至國朝典章外國風土 莫不細究焉.

1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1, 양엽기(養葉記)8, 校書.

본 논문의 번역문은 「국역 청장관전서」(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9) 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수정하였다.

청장관은 서적의 정밀성 여부를 교서가 잘 되었는가 여부로 결정하고 그는 교서관(校書官)의 기본 덕목으로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서작업을 맡겨야 교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토록 교서의 중요성을 토로하는 이유는 서적편찬 작업이 천고에 중요한 일인데, 실력도 없이 둔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교서업무를 맡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¹²⁾고 하면서,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 책장 말미에 '신(臣) 모(某) 교정'이라고 교정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 본받을 만한 좋은 법식¹³⁾이라고 하여, 책에 교서한 사람의 명단을 첨부하여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장관이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성대중(成大中)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교서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규장전운」은 교정을 보아도 여전히 교정거리가 생겨서 사람의 머리를 회개 하니 어찌면 좋을까요? 전적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은 교수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奎章全韻 隨校隨生 令人頭須欲皓 奈何 藝苑難事 莫如校讐)”¹⁴⁾

이처럼 청장관이 정조조 때 검서관으로서 「규장전운」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교서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교서가 잘못되었을 때의 폐해를 주장하면서 교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의 글을 잘못 읽고 또 남의 설을 잘못 풀이한 까닭으로 성인의 경전을 잘못 옮기고 심지어는 남의 형제의 순서를 문란하게 하고 망령되게 주장을 세워 나아가서 천하를 속이고 후세를 속였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예사롭지 않다.(是以誤讀人書 且誤解人說之故 而移誤聖經 甚至紊亂人之兄弟倫次 誣妄立說 于以誤天下 誤後世 此其所係非淺鮮也)”¹⁵⁾

12) 앞의 글.
書籍迺千古不朽之盛事 誤何容易 豈可付之魯莽鈍滯操擾懈惰 厭薄文學之流 誤了大業耶.
13) 앞의 글.
書葉中絲左畔之下 必刻臣某校 此四庫全書之良法也.
14)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16, 아정유고(雅亭遺稿)8, 서(書)2, 成土執大中.
1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9, 양엽기(盎葉記)6, 經書人物辨證

즉 교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의 말이나 글이 잘못 풀이되거나 옮겨지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장관은 서적의 교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교감에 대한 이 같은 입장 때문에 자신 역시 책을 읽으면서 그 자구 또는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자구나 내용을 바로잡은 교감학적인 저술을 많이 남기게 된 것이다.

3. 청장관 교감학의 실제

교감학(校勘學)은 일찍이 중국 한나라 때 유향에서 시작하여 청조에서 고증학의 일종으로 더욱 크게 융성한 학문이다. 이는 또한 교수학(校讎學)이라고도 불리 운다. 이 교수학은 협의적으로는 특정 서적의 각종 전래본 상에 자구만의 이동을 대조하여 가급적 그 경전의 원형 재현을 추구하는 학문의 뜻으로 쓰이며, 광의적으로는 전적의 자구와 문장 또는 내용까지도 연구하며 여러 전적에 인용된 어구 등의 출처를 구명하고 정확한 원문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뜻으로 쓰인다.¹⁶⁾ 여기에서는 교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교감학에는 자구적 교감(字句의 校勘)과 내용적 교감(內容的 校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장관전서』에 나타난 문헌 교감사례를 1) 자구적 교감과 2) 내용적 교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자구적 교감

청장관은 많은 서적을 탐독하면서 그 서적의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교감논의를 하고 있다. 그의 교감 사례 가운데 자구적인 교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4), 227.

사례 1 : 「후한서(後漢書)」에 나온 진신(縉紳)에 대한 글자 교감

청장관은 「후한서」에 수록된 ‘진신(縉紳)’이란 단어의 한자가 잘못된 글자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후한서」 28장전(二十八將傳) 논(論)에, “드디어 진신(縉紳)의 길을 막고 현능(賢能)한 사람을 옹폐시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장회태자(章懷太子)가 주석하기를, “縉은 붉은 빛을 말하며, 紳은 띠이다 혹 搢이라고도 쓰니 搢은 꽃는 것으로 笏을 띠에다가 꽃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後漢書二十八將[실은 章]傳論 遂使縉紳道索 賢能蔽壅 章懷太子註 縉 赤色也 紳 帶也 或作搢 搢插也 謂插笏於紳也)¹⁷⁾

위의 기사에 대해서 청장관은 지금 세간에서 모두 ‘진신(縉紳)’으로 통용하고 ‘진신(搢紳)’이라고 쓰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하면서, 진신(搢紳)이 옳은 것 같으니 ‘縉’ 자는 곧 ‘搢’ 자의 잘못이라고 하여¹⁸⁾ 그 글자가 틀린 것을 교정하고 있다.

사례 2 : 「규장전운(奎章全韻)」의 글자 교감

청장관은 「규장전운」의 편찬 작업에 함께 참여한 성대중(成大中)과의 편지에서 그 편찬 과정에서 성대중이 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고 있다.¹⁹⁾

瑯邪의 ‘邪’자는 마땅히 ‘琊’자로 고쳐야 한다. 瑯邪의 ‘邪’자가 바로 본 글자인데 뒤에 전(轉)하여 ‘琊’자로 쓴 것이다. 예부터 통용한다. ‘牝’자의 주(注)는 ‘牝牛’로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牯’는 바로 ‘牝牛’이다. 여러 책을 두루 상고해도 다 그렇게 되었는데, 「성휘」에는 ‘牝牛’로 잘못 기재 하였다.(瑯邪之邪 當改以琊 瑯邪之邪 乃是本字 後轉爲琊 自古通用 牯注 改以牝牛 似好 牯是牝牛 歷攷諸書 皆然 而聲彙訛作牝牛)²⁰⁾

17)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9, 양엽기(盎葉記)6, 縉紳.

18) 앞의 글.
按今俗 皆以縉紳行用 而其曰 搢紳者甚罕 然恐搢紳爲是 縉卽搢之譌也.

19)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16, 아정유고(雅亭遺稿)8, 서(書)2, 成士執大中.
奎章全韻 隨校隨生 令人頭須欲皓 奈何 藝苑難事 莫如校讐 … 諸條俯問 一一書呈 覽之可詳耳.

그는 「규장전운」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틀린 글자에 대해서 바로 잡고 있으며,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

사례 3: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에 나타난 인명과 지명의 오류 교감

청장관은 장정옥(張廷玉)이 편찬한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을 읽은 후 거기에 수록된 인명에 잘못된 것이 많다²¹⁾고 하면서 그 틀린 사례를 일일이 예를 들면서 글자를 올바르게 정정하고 있다.

‘成惟’는 ‘成準得’의 오기(誤記)이다. ‘甲雨’는 ‘金甲雨’의 오기이다. 성을 쓰지 않고 갑우(甲雨)라고만 했는데, 갑(甲)을 성으로 여긴 것 같다. 李仁人은 李仁任의 오기이다. 鄭總의 ‘總’자는 ‘摠’자의 오기이다. ‘李門炯’은 ‘文炯’이라는 ‘文’의 음이 와전(訛傳)된 것이다. ‘愈泓’은 ‘兪泓’의 오기이다. ‘奇芴’은 ‘奇峯’의 오기이다. 또 지명(地名)으로 ‘江源’은 ‘江原’의 오기이다. ‘蔚山’은 ‘蔚山’의 오기이다. 이 같은 일은 사실과 대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참으로 역사책을 편찬하는 도리가 아니다. (如成惟(準得之訛) 甲雨(金甲雨之訛 不書姓 只曰甲雨 意以甲爲姓) 李仁人(仁任之音訛) 鄭總(摠之訛) 李門炯(文炯之音訛) 愈泓(兪泓之訛) 奇芴(奇峯之訛) 又地名 如江源(江原之訛) 蔚山(蔚山之訛) 甚不照管 固非修史之道也)²²⁾

이처럼 청장관은 「명사」 조선전에서 잘못 기재한 우리나라의 인명과 지명을 일일이 예를 들면서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이다.

사례 4 : 중국의 역사 및 지리서에서 조선의 인명 또는 지명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한 교감

청장관은 중국에서 나온 여러 책에서 외국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장한(章漢)이 지은 「도서편(圖書編)」과 왕기(王沂)가 지은 「삼재도회

20) 앞의 글.

2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8, 양엽기(叢葉記)5, 明史紕謬 張廷玉 纂修明史 而朝鮮傳 人名多紕繆.

22) 앞의 글.

『三才圖會』 등의 글에서 조선 강역(疆域)의 나뉠과 군현(郡縣)의 이름이 반 이상 엉클어져 보고 싶지도 않다²³⁾고 총평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의 인명 또는 지명을 잘못 기재한 사례를 선정하여 오류가 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곡응태(谷應泰)가 지은 『명사기사본말(明史記事本末)』이 정제된 글이지만 임진왜란을 기술하면서 ‘이순신(李舜臣)’을 ‘이순(李舜)’이라 했으며, 장정석(蔣廷錫) 등이 편수한 『청일통지(淸一統志)』가 이현(李賢) 등이 편수한 『명일통지(明一統志)』와 비교하면 제법 상세하게 조사했지만 고구려(高句麗) 세계(世系)를 서술하면서 장수왕(長壽王) ‘거련(巨璉)’의 아들이 문자왕(文咨王) ‘나운(羅雲)’이고, 손자는 안장왕(安藏王) ‘흥안(興安)’으로 이들은 모두 이름이 두자씩인데 『청일통지』에서는 ‘련(璉)’, ‘운(雲)’, ‘안(安)’ 이라고 하여 그들의 이름 마지막 글자 한 자씩만 적었다²⁴⁾고 지적하면서 그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서, 궁예(弓裔)의 일을 기록한 내용을 들어서 “애꾸 중 궁예(弓父)가 개주(開州)에 웅거해서 왕이라 일컫고 태봉국(太封國)이라고 일컬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太封’은 ‘泰封’을 잘못 쓴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선의 인물 가운데 ‘李仁任’을 ‘李仁人’이라 잘못 기재하였으며, 이밖에도 현읍(縣邑)의 명칭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였다. 그는 예겸(倪謙)이 지은 『조선기사(朝鮮記事)』에서도 사람 이름이 거의 잘못되었다²⁵⁾고 하면서, 각종 서적에서 조선의 인명이나 지명 등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밝히고²⁶⁾ 교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23) 앞의 글.

大抵 中國記外國事 往往譌舛 如圖書編(章漢著)三才圖會(王沂著)等書 於朝鮮疆域之分郡縣之名 大半紊亂 不欲觀也

24) 앞의 글.

明史記事本末(谷應泰著) 整齊之書也 然記壬辰倭亂 以李舜臣爲李舜 淸一統志 蔣廷錫等修) 較明一統志(李賢等修) 頗詳覈 而叙高句麗世系 璉(長壽王巨璉) 子雲(文咨王羅雲) 孫安(安藏王興安) 此皆二字名 而只書一字

25) 앞의 글.

書弓裔事 有曰眇僧躬父 據開州稱王 號太封國(太封泰封之譌) 亦稱李仁任爲仁人 其稱縣邑不勝舛謬.

26) 앞의 글.

일을 기록한 것이 이 같은데, 일본, 안남(安南, 즉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²⁷⁾고 하였다.

3.2 내용적 교감

여기에서는 청장관의 내용적인 교감학적인 저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경서, 역사서, 기타분야 서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1 경서의 주소에 대한 내용적 교감

사례 1 : 「사서색해(四書索解)」와 「사서잉언(四書騰言)」에서 남의 조손(祖孫)과 부자(父子)를 뒤바꿔 잘못 기재한 사례에 대한 변증

청장관은 모기령(毛奇齡)이 지은 「사서색해(四書索解)」의 내용 가운데 “사서(四書)의 주석에 나오는 성명(姓名)이 남의 조손(祖孫)과 부자(父子)를 뒤바꾼 것이 많다.”²⁸⁾고 하면서 증서(曾西)는 곧 증신(曾申)으로 원래 증자의 아들인데 주석에는 손자라 하였고, 우중(虞仲)은 곧 우중(虞中)으로서, 원래 중옹(仲雍)의 증손(曾孫)인데 주석에는 중옹(仲雍)이라고 한 것²⁹⁾ 등을 예로 들면서 그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모기령이 지은 「사서잉언(四書騰言)」에서 “「맹자」 공손추(公孫丑)장의 ‘혹문 호증서(或問乎曾西)’의 주자(朱子) 주에서, 증서(曾西)는 증자(曾子)의 손자라고³⁰⁾”라고 잘못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감하고 있다.

至如朝鮮記事(倪謙撰)中 人名學皆紕繆.

27) 앞의 글.

我國如此 則四方他國 如琉球日本安南之屬 可類推也.

28)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9, 양엽기(盎葉記)6, 經書人物辨證 四書索解(毛奇齡撰)曰 四書註 姓名多有顛倒 人祖孫父子者.

29) 앞의 글.

曾西 卽曾申 本曾子之子 而註曰孫 虞仲 卽虞中 本仲雍曾孫 而註曰仲雍 是也.

「경전서록(經傳序錄)」에서 ‘증신(曾申)의 자(字)는 자서(子西)이다. 자하(子夏)는 시(詩)를 증신에게 전하고 좌구명(左丘明)은 전(傳)을 지어 증신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증서(曾西)는 곧 증신(曾申)으로서 증자(曾子)의 아들이지 손자가 아니다. 증신(曾申)의 자(字)가 자서(子西)라 한 것은 간지(干支)의 신(申)이 서방(西方)의 별자리이기 때문이니, 「춘추」의 초(楚) 나라 투의신(鬲宜申)과 공자 신(公子申)이 모두 자를 ‘자서(子西)’라 한 것으로 증험할 수 있다(案經典序錄 謂曾申 字子西 子夏以詩傳曾申 左丘明作傳 以授曾申 則是曾西 卽曾申 子西爲曾子之子 非孫也 其以申字子西 或以申枝爲西方之辰 如春秋 楚鬲宜申 公子申 皆字子西可驗)”³¹⁾

이처럼 청장관은 ‘증서(曾西)가 증자(曾子)의 손자’라는 기록에 대해 「경전서록(經傳序錄)」에 나온 내용과 다른 구체적인 전거를 들어서 증서(曾西)와 증신(曾申)은 동일인으로서, 증서가 증자의 아들이지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감하고 있다.

3.2.2 역사서에 대한 내용적 교감

사례 1 :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 잘못된 내용을 교감한 사례

청장관은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서, “왕은 경희(景熙)이고 아내는 박씨(朴氏)요 어머니도 박씨”³²⁾라고 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감하고 있다.

청장관이 상고한 바에 의하면, 신라 55왕 중에 휘(諱)를 경희(景熙)라고 한 사람은 없었고, 다만 애장왕(哀莊王)의 휘가 중희(重熙)이고, 신덕왕(神德王)의 휘가 경휘(景暉)라서, 경희(景熙)는 바로 중희(重熙)의 잘못된 것 같다³³⁾고 교감

30) 앞의 글.

四書勝言(毛奇齡撰)曰 孟子 或問乎曾西 朱註 曾子之孫.

31) 앞의 글.

32)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7, 양엽기(盎葉記)4. 舊唐書新羅王諱 舊唐書新羅傳曰 王景熙妻朴氏 母朴氏.

33) 앞의 글.

案新羅五十五王 無諱景熙者 但哀莊王諱重熙, 神德王諱景暉 而景熙似是重熙之誤

하고 있다. 그리고 애장왕(哀莊王)의 성(姓)은 김씨(金氏)이고 신덕왕(神德王)의 성은 박씨(朴氏)이므로 신덕왕의 어머니와 아내가 반드시 다 박씨는 아니었을 것³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례 2 : 「구당서(舊唐書)」 일본전(日本傳)에 잘못된 내용

청장관은 「구당서(舊唐書)」 일본전(日本傳)에서 “왕의 성(姓)은 아매씨(阿每氏)이다.”³⁵⁾라고 한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증하고 있다.

일본이 건국 이래로 한 가지 성(姓)으로 전해 오는데 源이 바로 그 성(姓)인데, ‘阿每’라고 한 것은 바로 왜인(倭人)들이 당(唐) 나라 사람을 속여서 욕하려고 만든 ‘阿母’가 전성(轉聲)된 말인 것 같다³⁶⁾고 언급하고, 그와 유사한 사례로서, 송(宋) 나라 때에 서하(西夏)의 임금이 낭소(囊霄)로 이름을 만들어 송나라 조정을 욕한 것과 같은 말로서 서하의 방언(方言)에 ‘낭(囊)’은 ‘나(吾)’라는 뜻이고 ‘소(霄)’는 ‘할아버지(祖)’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들어서³⁷⁾ 고증하고 있다. 그는 「명사(明史)」 일본전에서, “왕의 성은 왕(王)이다.”라고 한 것은 더욱 함당하지 않은 말³⁸⁾이라고 그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건국 이후로 ‘源’이란 성을 쓰는데, ‘阿每’라고 한 내용은 일본인들이 사용한 욕인 ‘阿母’가 전성(轉聲)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명사」 일본전에서 나타난 내용을 더욱 황당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34) 앞의 글.
哀莊姓金氏 神德姓朴氏 則神德母暨妻 未必皆朴氏也.

3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7, 양엽기(壘葉記)4, 舊唐書新羅王諱 又日本傳 王姓阿每氏 亦誤也.

36) 앞의 글.
日本王 自周時建國以來 一姓相傳 曰源阿每者 似是倭人 謚唐人 謾辱之爲 阿母之轉.

37) 앞의 글.
猶宋時西夏主 以囊霄爲名 謾辱宋朝 西夏之方言 囊者吾也 霄者祖也.

38) 앞의 글.
「明史」日本傳 稱王姓王者 尤無謂.

3.2.3 기타분야 서적에 대한 내용적 교감

사례 1 : 「자전(字典)」에서 잘못 인용한 사례

청장관은 「자전(字典)」 ‘諫’자 주(註)에서, “「요사(遼史)」 세조기(世祖紀)에, 고려왕(高麗王)의 세자(世子) 왕원(王諫)이 와서 조회하였다.”³⁹⁾라고 인용한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감하고 있다.

안찰해 보건데, 요(遼)나라 때에는 본래 세조(世祖)가 없으니 「요사」는 곧 「원사(元史)」를 잘못 기록한 것이며, 「諫」은 곧 충선왕(忠宣王)을 말한다.(案遼時 本無所謂世祖 遼史卽元史之譌也 諫卽忠宣王也)⁴⁰⁾

즉, 「자전(字典)」 ‘諫’자 주(註)에서 「원사(元史)」를 「요사(遼史)」로 잘못 기술한 것임을 정정하여 밝히고 있으며, 세자(世子) 왕원(王諫)이 고려 충선왕(忠宣王)을 말한다고 부연설명해 주고 있다.

사례 2 : 「봉래록(蓬萊錄)」에서 옛 서적을 잘못 인용한 경우

차식(車軾)의 「봉래록(蓬萊錄)」에서, “금강산(金剛山)에 화룡담(火龍潭)이 있는데, 옛 서적을 살펴보면, 고려(高麗) 말엽에 중국 사신 정동(鄭同)이 와서 이 산을 유람했는데 한 두목(頭目)이 하늘에 맹세하기를 ‘여기야말로 정말 부처가 사는 곳이다. 여기서 죽어 조선 사람이 되었다가 영구히 부처의 세계를 보리라’ 하고는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⁴¹⁾라는 내용에 대해서 청장관은 차식(車軾)이

39)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4, 양엽기(盎葉記)1, 字典引遼史 「字典」諫字註 引遼史世祖紀 高麗王世子王諫 來朝.

40) 앞의 글.

4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9, 양엽기(盎葉記)6, 火龍潭 車軾蓬萊錄云 金剛山有火龍潭 按古籍云 麗季中 使鄭同來觀此山 有一頭目 誓天曰 此眞佛境 願死於此 作朝鮮人 長見佛世界 乃投水而死.

옛 서적에서 인용한 사항은 잘못된 것⁴²⁾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동(鄭同)이 본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환관으로 뽑혀서 중국에 들어갔다가, 고려 예종 때와 성종 때에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 네 번이나 되는데, 차식(車軾)이 말한 ‘고려말엽’이란 시기는 맹랑한 말⁴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정동이 왔을 때 금강산을 유람한 일은 「통제경경물략(洞帝京景物略)」에 실려 있고, 또 주이준(朱彝尊)의 「일하구문(日下舊聞)」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아마도 두목(頭目)이 화룡담에 투신한 것은 ‘혹시 발이 미끄러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⁴⁴⁾고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청장관은 정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가 온 시기가 고려초기와 중기인 예종과 성종 때인데, 고려말엽이라고 설명한 사실에 대해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정동이 당시 조선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중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에 투신까지 했다면 천치 중에도 천치이며, 그렇지 않다면 붓짐장수들이 그 죽음을 과장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것⁴⁵⁾이라고 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교감하고 있다.

사례 3 : 「전당시(全唐詩)」에 누락된 내용을 밝힌 경우

청장관은 청나라 강희44년(1705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팽정구(彭定求) 등 10인이 칙명으로 편찬한 당시(唐詩)의 총집인 「전당시(全唐詩)」에서 당나라 문인

42) 앞의 글.
軾所引古籍非也.

43) 앞의 글.
同 本我國人 以火者 選入國中 睿宗 成宗 兩朝 奉使來我國 凡四度 其所云 麗季者 何其孟浪.

44) 앞의 글.
同來時 遊金剛山事 載洞帝京景物畧 至引入於朱彝尊日下舊聞 頭目之投火龍潭 無乃跣足.

45) 앞의 글.
願作朝鮮人 以至投水 痴絕痴絕 不然則裨販之徒 因其死 博會之爾.

고운(顧雲)의 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나라 문인인 고운(顧雲)이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주었다.

나는 들었네, 바다에는 세 마리 금자라가 사는데
 我聞海上三金鰲
 그 금자라는 머리에 높은 산을 이고 있다지
 金鰲頭戴山高高
 그 높은 산 위에는 진주궁궐 조개대궐 황금전각이 솟아 있고
 高山之上兮珠宮貝闕黃金殿
 그 산 아래에는 천리만리 큰 물결이 넘실대는데
 山之下兮千里萬里之洪濤
 그 곁에 하나의 점처럼 푸른 계림에서는
 旁邊一點鷄林碧
 오산의 빼어난 정기를 받아 기재(奇才)가 태어났다네
 鰲山孕秀生奇特⁴⁶⁾

그런데, 이 시가 「삼국사기(三國史記)」 본전(本傳)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전당시(全唐詩)」에는 누락되어 있다⁴⁷⁾는 것이다.

또한 「동문선(東文選)」에 최치원이 당나라 문인인 진사(進士) 장교(張喬)의 ‘촌거견기(村居見奇)’ 시(詩)에 화답한 시의 주에서 ‘장교(張喬)의 자(字)는 송년(松年)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당시」에는 그의 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⁴⁸⁾고 하면서 「삼국사기」와 「동문선」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당시」에서 누락시킨 내용을 밝히고 있다.

4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8, 양엽기(盎葉記)5, 全唐詩所漏

47) 앞의 글.
此詩載三國史記本傳 而全唐詩見漏 .

48) 앞의 글.
又東文選 崔文昌和張進士喬村居見寄詩註云 喬字松年 而全唐詩小傳 不著其字 .

4. 결 론

본 논문은 청장관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 나타난 교감사례를 고구한 글이다. 그 고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청장관의 교감사례를 자구적 교감과 내용적 교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자구적 교감에서는 역사서, 사전, 일반 서적 등에 나온 인명, 지명 등 단어에서 틀린 글자에 대해 교감하였으며, 내용적 교감에서는 경서의 주소에 대한 내용적 교감, 역사서에 대한 내용적 교감, 기타 분야서적에 대한 내용적 교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자구적 교감 사례를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후한서(後漢書)」에 수록된 ‘진신(縉紳)’이란 단어의 한자가 잘못된 글자임을 교감하였으며,
- 2)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틀린 글자에 대해서 교감을 하였으며,
- 3) 「명사(明史)」 조선전(朝鮮傳)에 나타난 인명과 지명의 오류를 교감하였으며,
- 4) 「명사기사본말(明史記事本末)」, 「청일통지(淸一統志)」 등에서 잘못 기재한 조선의 인물과 지명을 교감하였다.

다음으로 내용적 교감 사례를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서색해(四書索解)」와 「사서잉언(四書騰言)」에서 남의 조손(祖孫)과 부자(父子)를 뒤바뀌 잘못 기재한 사례에 대한 교감하였다
- 2)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서, “왕은 경희(景熙)이고 아내는 박씨(朴氏)요 어머니도 박씨”라고 한 내용에 대해 교감하였으며,
- 3) 「구당서」 일본전(日本傳)에서 “왕의 성(姓)은 ‘阿每氏’이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 일본이 건국 이후로 ‘源’이란 성을 쓰는데, ‘阿每’라고 한 내용은 일본인들이 사용한 육인 ‘阿母’가 전성(轉聲)된 것이라고 교감하였으며,
- 4) 「사전(字典)」 ‘諺자 주(註)에서, “「요사(遼史)」 세조기(世祖紀)에, 고

- 려왕(高麗王)의 세자(世子) 왕원(王諫)이 와서 조회하였다.”라는 말에 대해 교감하였으며,
5) 차식(車軾)의 「봉래록(蓬萊錄)」에서 옛 서적을 잘못 인용한 사례에 대해서 교감하였으며,
6) 「전당시」에서 누락시킨 사항에 대해 「삼국사기」와 「동문선」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교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청장관 이덕무가 풍부한 독서를 통한 서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서지학 분야 가운데 주제 분야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갖추어야 가능한 교감학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증좌된 것이다.

<참고문헌>

- 이덕무.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의 「청장관전서」.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9.
이덕무. 「청장관전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이덕무. 「청장관전서」. 영인본. 서울대학교 고서간행회 1966.
이덕무 지음. 권정원 옮김. 「책에 미친 바보」. 서울 : 미다스북스. 2004.
이덕무 외저. 이강엽옮김. 「맑은 바람이 그대를 깨우거든」: 우리고전 사색노트. 서울 : 웅진닷컴. 2002.
김아리. 「실학산책」 상. 하. 서울 : 서해문집 1994.
김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서울 : 집문당. 1993.
김윤희. “이덕무의 독서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류계일. 「이덕무의 시문학연구」. 서울 : 태학사 1998.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4.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입연기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제13 집1996. 3). 청주대 국제문화연구원. 81-104.

-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인문과학논집』 제6집(1987. 12). 청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87-214.
- 박문열. “유리창 서사기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제 14집 (1997. 2), 청주대 국제문화연구원, 183-208.
-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 안대회, “이덕무 소품문의 미학.” 『고전문학연구』 제24집(2003. 12). 273-317.
- 이화형. 『이덕무의 문학 연구』. 서울 : 집문당. 1994.
-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9.
- 『한국실학사상논문선집』. 10 : 실학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울 : 불함문화사. 1991.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서울 : 동 연구소. 2001.

